

주말농장 이용 실태 분석

-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

이은희 · 김용아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An Analysis of Weekend Farm Usage in Seoul

Lee, Eun-Heui · Kim, Yong-Ah

Faculty of Environmental and Life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Korea

ABSTRACT

Interest in weekend farming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among city-dwellers although it is still only in the beginning stages. Weekend farms provide people with new activities and also help to preserve green areas within the cit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weekend farm users think and what problems they encounter in order to increase the use of these farms. For this reason, we studied 16 weekend farms in Seoul managed by the Rural Guidance Office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We distributed 24 questionnaires by hand and these were later returned by mail.

The questionnaire asked weekend farmers about their motivation for using the farms, frequency of use, level of satisfaction, current state of housing and the sort of plants they cultivated, among other things. We found that most of them live in apartments and have little access to green areas. Weekend farm users were generally satisfied. However, they had a lack of gardening knowledge and reported that facilities such as toilets and water service were unsatisfactory.

Political support is needed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weekend farms. There needs to be a wider range of farm sizes and an increase in the uses of the farms (for example, as a place to relax). If these improvements occur, investment in and the development of weekend farming will increase and weekend farms will take root in Korea.

1. 서 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민들은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려는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다(류선무, 1989; 이질현, 1986). 우리 나라에서도 독일이나 일본 등 대도시에서 산업화 이후 널리 보급되었던 것처럼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농지를 임대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채소나 꽃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족 농장으로서(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7),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 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농림수산부, 1996; 한국관광공사, 1996). 주말농장의 효시는 1965년 수원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농장을 이용한 것인데(김용근, 1983), 전국적으로 파급되지는 못하였다. 1992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라는 모임'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어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말농장의 이용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주말농장의 이용은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부여, 농사 후 농산물 수확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농림수산부 1991), 아직까지는 주말농장이 정책화 된지 얼마 되지않아 현재의 실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주말농장에 관한 연구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관광농원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 연구(이한구, 1988)를 위시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1994)와 류선무(1994)는 외국과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고, 류선무(1994), 한익환(1995)과 박영수(1993) 등은 관광농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주말농장에 대한 연구는 김용수

(1997), 이영희(1992)가 독일의 분구원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주말농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농장의 현지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여 주말농장이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도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현재 서울시 농촌지도소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주말농장 총 16개소를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주말농장의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말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이용 동기, 이용 상황, 만족도, 작물 현황으로 나누어 총 26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1997년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1달 반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방법은 배포 기간, 농장에서 만난 이용자들에게 직접 설문지와 우표를 동봉한 우편봉투를 배포한 뒤에 회수하는 설문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서울에 위치한 주말농장의 현황

3. 1 주말농장 운영 형태

3. 1. 1 농촌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농촌 지도소는 1992년 초기에는 직접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으나, 회원수가 많아지면서 개

인농가와 회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말농장의 형태는 해마다 변형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다양하게 텃밭재배형, 수경재배형, 배나무임대형, 자연학습장으로 나누어 임대하였으나 농가참여가 해마다 달라져 올 1997년에는 수경재배형과 배나무임대형을 운영하던 농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1997년에는 텃밭재배형과 자연학습장만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에 참여한 농가 9개소 중 4개소의 농장만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5개소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주말농장의 지속적인 운영 방침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주말농장은 일반 시민들이 식생활에 필요한 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 재배형'과 유아원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자연학습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연학습장은 채소류보다는 어린이들이 재배·관리하기 쉽고 직접 캐 수 있는 고구마, 감자, 무 등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작물별 연중 작부체계 수립, 재배기술 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농장주와 주말농장의 현황에 대한 의견을 여름과 겨울에 걸쳐 나누어 다음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장주는 밭갈이 및 이랑지우기, 밀거름주기, 종자·비료·모종준비, 재배기술 상담, 기타시설관리, 농기계준비 등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씨뿌리기, 모종심기, 솟아주기, 옷거름주기, 김매기, 물주기, 작물수확, 농장 주변환경 정리정돈 등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농촌지도소, 1997).

3. 1. 2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농협이 직접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직접 임대하고 있다. 주말농장은 모두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재배하는 텃밭재배형으로 되어 있다. 농협에서는 주말농장을 3-12월까지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음해를 위한 주말농

장 준비기간으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 임대 현황

1997년 현재 이용되고 있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주말농장은 16곳으로 서울시 농촌지도소를 통해 연계해주는 곳은 서초구 내곡동에 2곳, 서초구 원지동에 5곳, 서초구 신원동에 2곳, 강남구 자곡동, 고덕동, 은평구 진관외동에 각각 1곳씩이 있고 농협이 임대해주는 주말농장은 송파구 방이동에 1곳이 위치하고 있다(표1). 주말농장 이용자수는 주말농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1992년에는 560명 정도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현재는 텃밭 재배형으로 운영되는 곳의 농장 수는 13개소로 회원수가 2750명, 자연학습장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원 32개소의 3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주말농장의 임대기간은 1년으로 단기간이며 임대면적은 1구획당 3평, 4평, 5평으로 임대하고 있다. 1997년도 임대가격을 보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어 평당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나타났다(표 1). 농촌지도소를 통해 임대되는 주말농장의 임대가격이 각각 다른 것은 농장주들과 협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으로 농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자연학습장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구획의 크기가 텃밭재배형보다 큰 20평에서 35평정도로 나누어 임대하고 있고 임대가격은 평당 1만원으로 텃밭재배형보다는 평당가격이 저렴한 편이다(표1). 또한 단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텃밭재배형보다 이용횟수가 적고 주말보다는 평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 주말농장의 분구 형태

주말농장의 분구는 1구획을 3평, 4평, 5평으로 나누어 각 농장마다 크기를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규정된 크기는 없고 평형에 따라 각 농장마다 장방형으로 크기에 맞게 구획하여 표말로 분구를 표시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사진 1).

표 1. 1997년 서울 농촌지도소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현황

	입대형	위 치	크기(평)	회원수	1구좌(평)	구좌당금액(원)
농 촌 지 도 소	텃밭재배형	서초구 내곡동	900	200	3	6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원지동	5,000	900	3	6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원지동	920	100	4	5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내곡동	1,000	110	3	6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신원동	1,500	300	5	60,000
	텃밭재배형	강동구 고덕동	2,700	400	3	6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원지동	1,500	200	4	60,000
	텃밭재배형	강남구 자곡동	1,000	100	3	6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원지동	500	45	3	6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원지동	700	5	3	60,000
농 협	텃밭재배형	은평구 진의관동	600	120	5	60,000
	텃밭재배형	서초구 신원동	2,500	20	5	60,000
	텃밭재배형	송파구 방이동	2,500	250	5	50,000
	자연학습장	서초구 내곡동	1,500	유아원16개소	20	10,000/평당
	자연학습장	서초구 원지동	1,500	유아원6개소	20	13,000/평당
지도소	자연학습장	강동구 상일동	500	유아원10개소	35	10,000/평당

자료 : 서울시 농촌지도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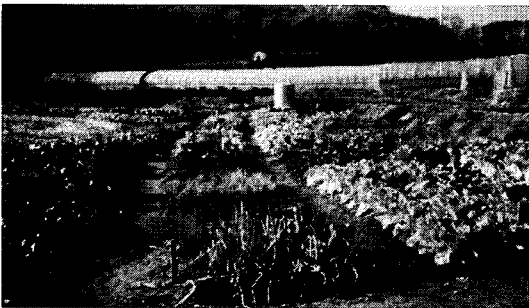


사진 1. 주말농장의 구획 / 강남구 자곡동 (사진:김용아)

대부분 농장전체의 주통로는 150cm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졌고 구획과 구획사이의 거리는 통행할 수 있게 50cm정도 띄어두고 있으나 식물들이 자라면서 구획간의 간격은 훨씬 좁아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3. 4 주말농장의 이용 시설 현황

주말농장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화장실·수도시설·어린이 이용 시설·민박시설·휴게시설·편의시설·취사시설·작물도구·주차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부대시설은 이용자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것이므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 대부분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

주말농장내의 화장실은 모두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었고 조사 농장 16개소 중 3곳은 기본적인 시설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시설은 작물 재배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기 때문에 물탱크나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사진 2). 그러나 시설이 열악한 상태이고 대부분 1개의 수도시설이 주말농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농장의 면적이 클 경우에는 물을 주는데 시간과 노력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이용 시설은 주말농장의 공터를 이용하거나 주변 인가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쉴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박시설과 취사시설은 주말농장에는 없고 주변에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어 청결상 문제가 되므로 규정이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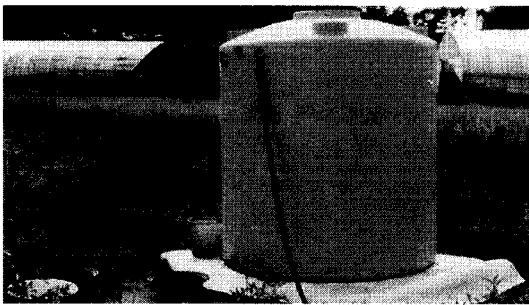
주차시설 역시 정해진 주차장은 없었지만 주말농장의 공터를 이용하여 주차를 하고 있었

표 2 주말농장 안의 이용시설 현황

농장위치	화장실	수도	어린이 시설	민박 시설	휴게시설 (피콜라/비닐하우스)	편의시설 (매점/식당)	취사 시설	작물 도구	주차 시설
서초구 내곡동	유	유	무	무	피콜라2개	무	무	유	유
서초구 원지동	유	유	무(인근-유)	무	피콜라2개/비닐하우스2동	무	무	유	유
서초구 원지동	무	유	무	무	피콜라1개/비닐하우스2동	무	무	유	유
서초구 내곡동	유	유	무	무	피콜라2개	무(인근-유)	무	유	유
서초구 신원동	유	유	무	무	피콜라2개/비닐하우스1동	무(인근-유)	무	유	유
강동구 고덕동	유	유	무(인근-유)	무	피콜라1개/비닐하우스1동	무	무	유	유
서초구 원지동	유	유	무	무	피콜라1개/비닐하우스1동	무	무	유	유
강남구 자곡동	무	유	무	무	무	무(인근-유)	무	유	유
서초구 원지동	유	유	무	무	피콜라1개/비닐하우스1동	무(인근-유)	무	유	유
서초구 원지동	무	유	무	무	피콜라2개/비닐하우스1동	무(인근-유)	무	유	유
은평구 진외관동	유	유	무	무	피콜라1개/비닐하우스1동	무(인근-유)	무	유	유
서초구 신원동	유	유	무(인근-유)	무	피콜라1개	무	무	유	유
송파구 방이동	유	유	무(인근-유)	무	비닐하우스2동	무(인근-유)	무	유	유
서초구 내곡동	유	유	무(인근-유)	무	피콜라2개	무(인근-유)	무	유	유
서초구 원지동	유	유	무(인근-유)	무	피콜라1개/비닐하우스1동	무	무	유	유
강동구 상일동	유	유	무(인근-유)	무	피콜라1개/비닐하우스1동	무(인근-유)	무	유	유



a) 지하수 수도/ 강남구 자곡동



b) 물탱크/ 송파구 방이동

사진 2 지하수와 물탱크를 이용한 수도시설 (사진: 김용아)

다. 그러나 공터가 없는 농장도 많아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길가에 세워 놓는 등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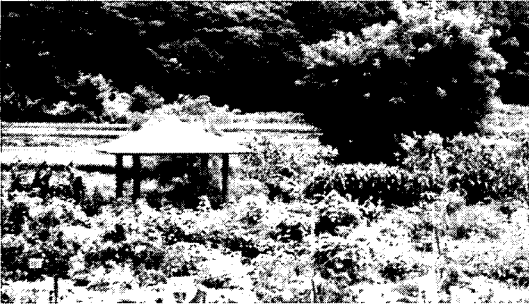
에 방해가 되고 안전하지 못하였다.

휴게시설로는 피콜라 또는 비닐하우스가 각 주말농장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피콜라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예전 쓰던 것을 이용하여 농기구를 넣어두거나 간이로 앉아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기도 하였다(사진 3). 휴게시설은 이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었으나 피콜라 수가 1개 정도이어서 농장규모에 비해 수와 크기가 충분치 못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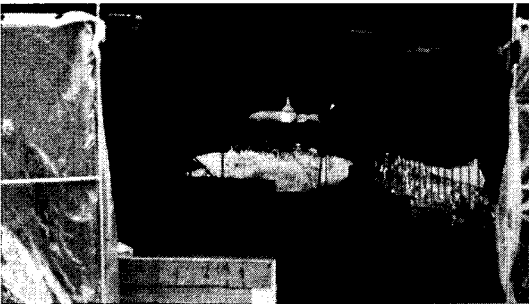
매점이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은 주말농장 안에선 볼 수 없었고 주변 인가에 매점과 식당이 있었다.

작물도구는 공동도구로써 농가에서 마련해 두고 있으며 무료로 이용자들에게 빌려주고 있었다. 작물도구를 위한 보관대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놓아두거나 외부에 방치해 두고 있었다. 공동 작물도구의 종류는 조리개, 호미, 곡괭이, 삽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사진 4).

쓰레기 수집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 쓰레기는 대부분 이용자가 갖고 가도록 권하고 있지만 잘 실행되지 않아 쓰레기때문에 벌레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플라스틱, 병,



a) 피골라 / 서초구 신원동



b) 비닐하우스 / 강남구 자곡동

사진 3. 휴게 시설 (사진: 김용아)

캔 등을 모을 수 있는 재활용함이 없어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

위와 같이 주말농장의 이용 시설을 살펴본 결과 쓰레기 수집장소를 제외하고는 이용 시설이 종류별로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지만 청결하지 못하고 시설이 낙후되거나 농장규모에 비해 이용 시설의 갯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설문지를 통한 주말농장 이용 실태 분석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현 상황에서 주말농장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와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주말농장을 방문하여 이용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주말농장 이용자들에게 우표를 동봉하여 배포한 결과 우편으로 128부가 회수되어 64.0%의 회수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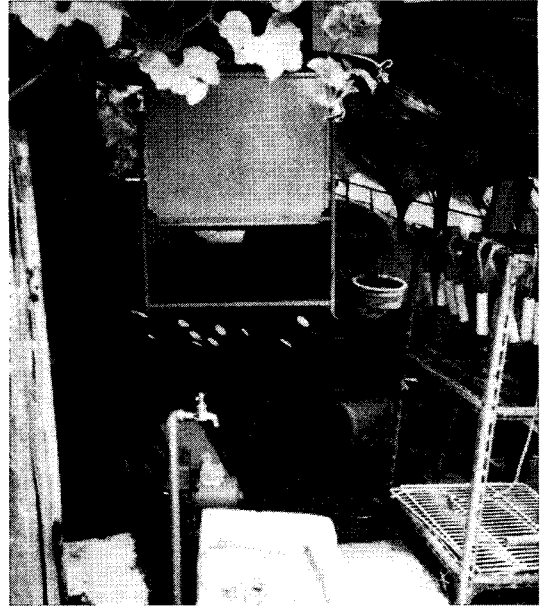


사진 4. 작물도구의 보관상태 / 서초구 신원동 (사진: 김용아)

4. 1 주말농장 이용자에 관한 설문 분석

설문지에 답해준 남녀의 비율은 남자가 53.7%, 여자가 46.3% 이었다. 이 성별은 설문지 작성자의 성별이므로 이용자의 성별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층은 30대가 40.7%, 40대가 40.7%, 50대는 11.1%로 대부분 30, 40대가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가 39.6%, 공무원·회사원 46.3%, 자영업 11.1%, 전문직 종사자 13.0%로 다양하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25.9%, 대졸은 66.7%로 나타나 대체로 고학력의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9.3%, 아파트가 72.2%, 빌라·연립이 18.5%로 나타나 개인정원이 없는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와 같은 현상은 주거형태가 아파트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주말농장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주거크기는 20-30평 미만이 27.8%, 30-40평 미만은 37.0%, 40

평 이상은 18.5%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서민층보다는 중류층에서 주말농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농촌 거주 경험이 있다”는 42.6%, “농촌 경험이 없다”가 57.4%로 나타나 농촌에 살았던 사람이나 농촌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관계없이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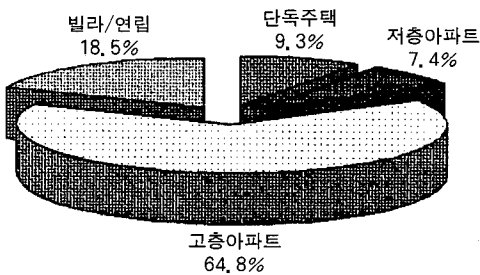


그림 1. 이용자의 주거형태

이용자들이 주말농장을 알게 된 동기를 보면, ‘친구·친지·동료에게서’ 42.6%, ‘신문·잡지’에서 24.1%, ‘간판·팜플렛’에서 16.7%, ‘TV·라디오’에서 9.3%로 나타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것 보다 직접 이용하여 본 사람들은 통하여 주말농장을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이용자에게 의한 홍보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2 주말농장 이용 기간 및 방문 형태

“주말농장을 몇 년째 이용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처음이 50%, 2년째 이용이 38.9%, 3년째는 5.6%, 4년째는 5.6%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이 이용해본지 얼마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말농장의 정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용하는 요일은 일요일이 42.9%, 토요일이 39.7%, 수요일이 7.9%의 순으로 나타나 평일보다 주말 이용자가 월등히 많았다.

방문회수를 보면 주 2-3회가 19.1%, 주 1회가

52.1%, 월 2회는 11.2%, 기타는 14.9%으로 나타나 이용자 대부분은 주 1회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횟수를 계절별로 나누어 보면 봄철에는 주 2-3회가 33.3%, 주 1회는 55.6%, 여름철에는 주 2-3회가 13%, 주 1회는 64.8%, 가을철에는 주 2-3회가 29.6%, 주 1회는 57.4%, 겨울철에는 주 1회가 30.2%, 기타는 60.4%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여름에는 더위와 장마로 인해 이용자들의 방문이 줄어들고 가을철 배추 수확 이후에는 이용자들이 쌀쌀한 날씨와 작물 수확을 마쳤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은 오전에 63.9%, 오후에 32.8%가 방문하며 주말농장에 1-3시간(76%), 3-5시간(11.1%) 동안 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자들이 덥지 않고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방문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에는 주말농장 이용자의 98.1%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교통·주차시설에 대해 33.3%가 만족, 39.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모두들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이용자들이 한 계절만 이용하거나 같은 시간대에 농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용하고 싶은 때 이용하여 다른 관광지보다 주차시설, 진입로 등의 교통시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말농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1시간이 59.3%, 1~2시간이 37.0%로 나타나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농장을 이용할 때의 동반유형은 ‘가족과 함께’가 69.4%, ‘친지, 친구’가 각각 9.7%, ‘이웃’이 6.9%, ‘동료’가 2.8%으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 동반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았다. 동반유형에서는 가족이 가장 많았지만 동반자 수를 보면 2명이 40%, 3명이 29.1%, 1명이 14.5%, 4명이 10.9%, 5명 이상은

5.5%로 동반자수는 2-3명으로 나타나 핵가족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4. 3 주말농장 이용 동기

주말농장을 이용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농산물을 직접 재배, 수확하는 즐거움에 이용한다'가 26.1%,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한다'는 20.5%,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13.0%로 나타났다(그림 2).

주말농장 이용자들은 농산물을 직접 재배·수확 할 수 있고, 도시생활에서 자연을 접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자연을 접하게 할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이용동기와 만족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주말농장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4 주말농장 임대 현황

주말농장의 임대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70.4%가 임대가격은 평당 1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구좌 당 4-5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가격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2%는 현재 1구좌당 면적도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1구좌를 임대하고 있고, 2구좌 11.1%, 3구좌 1.9%, 6구좌 1.9%도 있어 자유롭게 임대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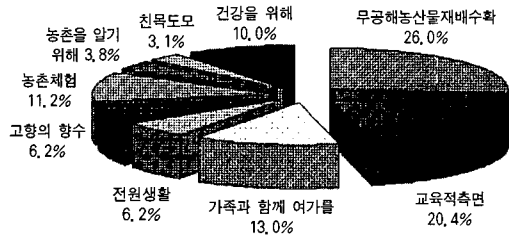


그림 2. 주말농장 이용 동기

그 밖에 이용 동기로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11.2%이고, '건강을 위해서'는 9.9%, '전원생활'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는 각각 6.2%,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3.1%로 나타났다. 주말농장을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만족한 점을 보면 '농산물 수확' 19.8%, '자연에 대한 관심' 17.3%, '교육적인 측면' 14.2%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11.1%,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8.0%, '농촌의 이해' 7.4%, '고향의 향수' 6.8%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3).

4. 5 주말농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

주말농장내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는 '화장실·수도시설'에 대해 만족이 15.4%, 보통 23.1%, 불만족 62.6%로 반 이상이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시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4). '퍼골라·정자' 등 휴게 시설을 사용한 후의 만족도는 만족 27.0%, 보통 46.2%, 불만족 26.9%로 나타나 휴게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결상태, 낙후된 정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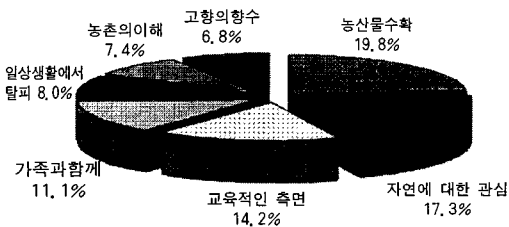


그림 3. 주말농장 이용 후 만족한 점

'민박시설'은 집과 농장과거리가 가깝고, 농장이 농촌 체험장으로 하루 코스로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주변에 민박시설은 없었고 이용자 대부분도 민박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주말농장 주변에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16.7%, 없는 곳은 8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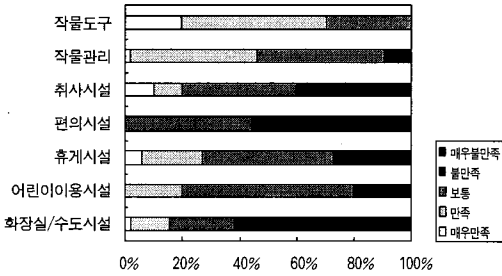


그림 4. 주말농장 시설의 만족도

위치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말농장의 주변 안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취사시설에 대해서는 “취사시설을 할 장소가 있다”가 18.5%, “없다”가 81.5%로 나타났지만 이는 수도시설에서 취사하는 이용자들이 있어서 취사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며 갖추어진 취사시설은 없었다. 취사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8.5%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 10%, 만족 10%, 보통 40%, 불만족 40%로 나타나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취사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보이거나 불만족의 비중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4). 그러나 취사시설이 아닌 수도시설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 이용자가 있어 문제가 된다.

4. 6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주말농장 주변의 관광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전체의 27.8%, “없다”는 72.2%로 주변의 관광지를 방문해 본 사람들이 적게 나타나 앞으로 주변 관광지를 이용자에게 알려 주말농장 방문시 부수적인 효과도 높여 적극 주말농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27.8%)중 ‘주변 관광지와의 주말농장과의 연결이 좋다’가 26.7%, ‘보통’은 73.3%로 응답하여 주변의 관광지와의 연결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지를 방문해 보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 새로운 경험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7 사회적 교류

주말농장 안에서의 농장소유자나 농업종사자들에게 텃밭재배에 대한 조언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항인 농민과의 교류는 ‘보통’은 29.6%, ‘적다’는 64.8%로 나타나 이용자 대부분이 농민과의 교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주말농장의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장주가 농장에 나와 있는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농장 안에서 이용자와의 교류도 ‘보통’이 46.3%, ‘없다’가 51.9%로 농민과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와의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잡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우 한산’이 3.7%, ‘한산’이 44.4%, ‘보통’이 46.3%, ‘복잡’은 5.6%로 나타나 주말농장은 종자심기, 비료 주는 날 등을 제외하고는 혼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8 작물 재배 및 관리

작물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은 46.3%, ‘보통’은 44.4%, ‘불만족’은 9.3%로 나타나 이용자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의 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남의 작물을 따 가는 등 이용자의 의식이 필요한 부분에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작물도구는 이용자의 94.4%가 농장에서 빌려쓰고 있으며, 5.6%는 직접 자신의 것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구를 빌려쓰고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70.6%, ‘보통’이 29.4%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구의 양·질적인 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종자 구입은 ‘농장에서’ 72.7%, ‘주변농가에서’ 3.0%, ‘종묘상사에서’ 21.2%, ‘기타’ 4.0%로 나타나 대부분이 주말농장에서 구입하며, 이용자 스스로가 심고 싶은 종자는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보면, 보통 1년생 채소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장용 배추, 무는 응답자의 92%가 재배하고 있었으며, 가지, 오이, 상치, 깻잎, 파, 고추, 방울토마토, 딸기, 갓, 근대, 얼가리, 부추, 썩갓, 열무, 들깨, 양상치, 시금치, 호박, 알타리 무우, 배추 등의 채소류를 심고 있으며, 많은 양을 재배하기보다 많은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화훼류는 봉선화 정도만 심어지고 있었고 과일류는 재배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으로 현재의 주말농장은 텃밭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고, 아직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단순한 상대임을 알 수 있었다.

4. 9 전체적인 만족도 및 정원으로서의 활용 여부

농장을 이용한 뒤 전체적인 만족도를 물어 보았는데 이용자들은 ‘만족’이 49.1%, ‘보통’이 39.6%, ‘미흡’이 11.3%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용자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림 5), 이것은 작물수확에 대한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시설물에 대한 만족 정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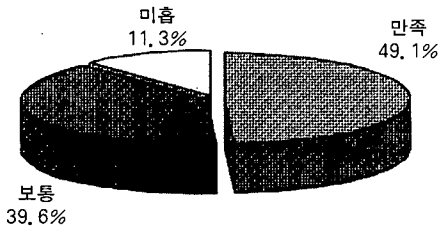


그림 5. 주말농장의 전체적인 만족도

“주말농장을 주말농장의 성격을 가진 개인 정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을 하였는데 ‘있는 것이 좋다’가 79.6%, ‘그냥 그렇다’가 14.8%, ‘없는 것이 좋다’가 5.6%로 응답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주말농장에 정원의 휴식적인 기능도 첨가된 주말

농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국 주말농장의 현황

외국의 주말농장 경우를 보면 독일은 분구원, 영국은 할당지, 네덜란드는 원예농원, 일본은 시민농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한국과의 비교는 표 3과 같다. 이들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에게 자연과의 친밀감을 주기 위해, 녹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가생활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실리채원형이나 레저채원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1년의 단기간인데 반해, 독일과 네델란드의 경우는 장기간동안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주말농장의 면적은 우리나라는 3-5평, 일본은 10-20㎡정도의 소규모인데 반해 독일·영국의 경우에는 평균 300㎡정도를 가지고 있어 주말농장 안에 소건물을 설치할 수 있어 휴식적인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주말농장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는데 특히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세기 중반 도시빈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빈민원(Armengärten), 어린아이들의 신체적인 단련과 자연활동을 위한 슈레버 가르텐(Schrebergarten), 국민의 건강적 측면에서의 노동자 정원에서 현재의 분구원(Kleingärten)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할은 전쟁 중에는 도시인들의 식량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세계 공황 때에는 생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채소 등을 식재하며 여가 및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였다(Mainczyk, 1994).

1980년 중반 이후 분구원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도시 내 녹지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생태공원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계획되었고(Bezirksamt Schöneberg von Berlin, 1989)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Rolka, Bodo & Volker Spiess 1987) (사진 5).

표. 3. 외국과 한국의 주말농장의 비교

구 분	독 일	네덜란드	영 국	일 본	한 국
명칭	분구원	원예농원	할당지	시민농원	주말농장, 주말농원
성격	레저채원형	레저채원형	실리채원형	실리채원형	실리채원형
발생 시기	19세기	19세기	18세기 후반	1960년대 중반	- 1960년대말 주말농장형 이 관광농원 시초 - 1992년 본격적으로시작
법률	kteingarten법 (1919년제정) 1983년개정*	-	allotment법 (1887년 제정 후 수차에 걸쳐 법제정)	특정농지대부법 (1989년 제정) 시민농원정비촉진법 (1990년 제정)	농어촌 정비법 제66조에서 농어촌 휴양사업의 한 종류 로 규정 (1994년 제정)
제도의 목적	- 자연에 친밀한 장소의 제공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 게 하고자 함 - 도시지역녹화 유지	- 여가생활의 유지 수단 - 공공녹지로서 의 기능	- 빈곤자의 구제 기능이 약하고 여가생활수단으로서 기능중시 - 신선, 안전식품 수요증가에 대응	- 농업종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협을 통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은 면적의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건강한 국민생활을 확보 함과 동시에 좋은 도시 환경의 형성과 농촌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자연관광 보전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국민관광 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농의 소득증대와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한
생산물 판매	금지	금지	금지	특별한 규정없음	특별한 규정없음
농지 임차 방식	기본적으로 다음 2가지형이 있음 - 시민농원협회가 지주로부터 임차하여 회원이 기획 이용권에 의거하여 이용하는 형 - 이용자가 지주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형			- 농가가 이용자와 1년미만의 입원계약을 체결하여 개설 - 市噐村이 농가로부터 임차하여 시민상대로 개설 - 농협이 농가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개설	- 농협이 농가에서 임차하여 시민에게 임대 - 농촌지도소에서 개인농가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농가에서 시민에게 임대 - 농가와 시민이 직접임차
1구획 면적	평균 300㎡ 최대 400㎡	평균 220㎡ 최대 500㎡	평균 330㎡ 도시 250㎡ 농촌 500㎡	약 10-20㎡ 경우에 따라 30-50㎡	- 텃밭배치형 약 10 -17㎡ - 자연학습장 약 70-120㎡
조건물	가능, 24㎡	가능, 농가 전체의10%이하	지방당국의 동의 필요(보통 불가)	특별한 규정 없음	불 가
이용기간	무기한*	유기한(10년)	1년	1년	1년
토지 소유자	99%가 협회이외의 소유지(그 중 공유지가 85%)	99%가 협회 이외의 소유지(그 중 공유지가 93%)	99%가 협회이외의 소유지(그 중 거의 공유지)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용자 조직	있음 전국조직이 있음	있음 전국조직 있음	있음 전국조직이 있으나 조직율은 낮음	전국조직 없음	전국조직 없음
협회 회원수	50만인	3만인	49만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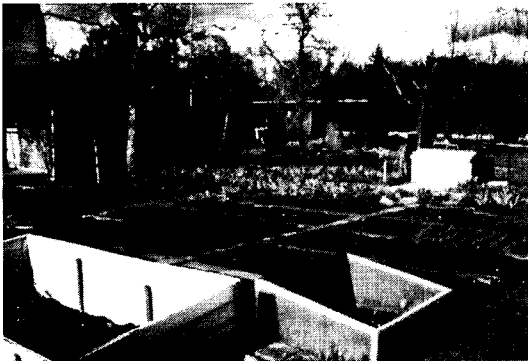
자료: 외국의 주말농장 사례를 신갑철, 「관광농원 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독일의 경우 * 는 Mainczyk, 「Bundeskleingartengesetz」에서 발췌, 한국의 주말농장은 저자 추가하여 구성함

이와 같이 분구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며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말농장은 개인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에서 여가선용을 위한 도시농업과 휴식공

간을 제공하는 녹지로서의 도시생태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도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정원 기능의 분구원



b) 채소원의 기능의 분구원

사진5. 독일 분구원의 한 예 / 문헌 (사진: 이은희)

6. 주말농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주말농장은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유희농지를 활용할 수 있고(이원준, 1993, 정하성·송두범, 1996, 한국관광공사, 1987),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함께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농민들에게는 농가소득문제 등의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농업이다.

이러한 주말농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용자와 농민들이 양적·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농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분구 내의 도로와 통로, 휴게공간, 놀이공간, 장 단기 이용분구지역 등을 계획하고, 또 주말농장의 크기나 임대기간을 다양하게 하여 텃밭재배형의 주말농장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정원으로서의 활용 등을 모색하여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게 한다.

둘째, 주말농장이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도시녹지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 이로써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말농장의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주말농장은 토지를 빌려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을 위한 학습이나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주말농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농가와 기관에서 재배기술과 작물의 특성을 가르쳐주는 교실, 농민들과 이용자들과의 관계와 이용자와 이용자들간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농산물 교환, 농산물 수확 후 재배현황보고, 품평회 등을 열어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 또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여 농민과 도시민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도농간의 거리감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환경농업을 권장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주말농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쓰레기는 관리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들고 가도록 하지만 퇴비화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모을 수 있는 공동 퇴비장을 설치하여 유기물 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재활용함을 설치한다. 또한 농약이나 화학비료들을 쓰지 않는 유기농법을 유도하고, 빗물이용, 퇴비 화장실 등도 개발하여 분노 등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친환경적 주말농장지역을 만들어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한다.

7. 결론

현 서울시에 위치한 16개소의 주말농장은 텃밭재배형과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이용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외국 특히 주말농장의 역사가 오랜 유럽과 비교해보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널리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말농장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닐 뿐더러 이용 시설 등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들은 전체적으로 주말농장 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은 주말농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용자들이 농사체험이나 농작물 수확의 보람 등,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인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에서 주말농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발전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여가선용을 위한 도시농업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녹지로서 주말농장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말농장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주말농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자·농민들 각각의 적극적인 참여 및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이 충족된다면 주말농장은 농사 체험의 장소, 휴식의 장소, 그리고 이용자 상호간의 교류의 장소로도 활용되어 도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용근(1983), 무성산 관광농촌공원 개발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용수(1997), 해외의 전통조경 계승과 현대화 사례, 환경과 조경, (110):88-91
3. 농림수산부(1991), '92년도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 사업추진 요령
4. _____(1996),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및 농어촌 정비법
5. 농협협동조합중앙회(1997), 주말농장안내책자
6. 류선무(1989),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7. _____(1994), 외국의 관광농원 실태와 도입방법, 환경과 조경, (73): 74-80
8. 박영수(1993), 한국 관광농원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9. 신갑철(1995), 관광농원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근교 경기동남부지역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원준(1993), 전원도시화와 주말농장으로의 농지제도의 개선. 지적
11. 이철현(1986), 『농업개발론』
12. 이항구(1988), 관광농업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경기대 관광개발연구소
13. 이영희(1992), 독일 분구원의 생성, 발전 및 환경 문제 (I), 환경과 조경, (51):168-173
14. _____(1992) 독일 분구원의 생성, 발전 및 환경 문제 (II), 환경과 조경, (52):160-173
15. 정하성·송두범(1996), 한계농지개발을 위한 관광농업 모형연구. 토지연구
16. 한국관광공사(1987), 유희시설의 관광시설활용계획 연구
17. _____(1994), 선진국 관광농업 사례 연구
18. _____(1996), 농어촌 관광 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 한익환(1994),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주말형 관광농원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Bezirksamt Schöneberg von Berlin Stadtplanungsamt(1989), Konzept zur Neuordnung des Schöneberg Südgeländes, Berlin, (Bericht)
21. Mainczyk, Loren(1994), Bundeskleingratengesetz, Rhem
22. Rolka, Bodo & Volker Spiess (Hrsg.(1987)), Berliner Laubenpieper, Berlin